

* 2013년 시립극단 공연현황 총괄

일자 / 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계	35건 / 85회			19,713명
2013. 1. 18 ~ 2. 3 소공연장 (30회)	제64회 정기공연 “애들아 용궁가자”	<p>각색 : 박상철 연출 : 이완희</p> <p>*출연진*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최지연, 정순미, 김문정, 김태범, 김태훈, 송주희,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권순정, 황혜원, 이신애</p> <p>*스텝* 작곡 : 김두환 안무 : 김현아 무대미술 : 박재범 조명 : 김호진 음향 : 김현산 의상/분장 : 손진숙 영상 : 양덕규 특수효과 : 성범재 노래지도 : 한설희 사진 : 유재형 단무장 : 김화산 조연출 : 손경희 기획 : 이옥희, 이돈형</p>	<p>자라는 용왕님의 약을 구했을까? 우리가 모르는 토끼와 자라의 우정 이야기</p> <p>[줄거리] 용왕이 병을 얻어 명약으로 육지에 사 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 살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충성심이 강한 자라가 위 험을 감수하고 육지에 올라온다. 온갖 시련으로 죽을 운명을 맞이한 자라를 토끼가 발견하고, 밤을 새는 간호 끝에 자라를 살려낸다. 토끼의 어머니 역시 자라를 지극 정성으로 보살피며 생명을 살려낸다. 토끼의 집에서 자라는 그렇게 찾아 다니던 토끼가 자신을 살려 낸 동물 이라는 것을 알고 심각한 고민에 빠 진다. 그러나 용왕에 대한 충성심으 로 토끼를 피어 용궁으로 데려간다. 용궁에서 죽음에 처한 토끼는 육지 에 홀로 남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 으로 눈물 바람을 일으킨다. 토끼 의 절박함에 자라는 토끼의 피를 합리적으로 변명하며 토끼를 감옥 에서 탈출시킨다. 목숨을 걸고 토끼를 탈출시키고 바 다로 돌아가려는 순간 토끼는 산삼 을 구해 용궁으로 돌아가면 용왕님 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용왕의 병 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낸다. 토끼와 자라는 온갖 어려움 을 이겨내 마침내 산삼을 찾아낸다. 토끼와 자라는 서로를 속여야 살 아남는 비정한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 상생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p>	4,673명
2013. 1. 22(화) 대공연장	2013 신년음악회	<p>*출연진*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성숙, 김현준</p> <p>*스텝* 훈련장: 이완희 단무장 :김화산 조연출: 손경희 기획: 이옥희, 이돈형</p>	연극 “봄날” 中 1장	1,152명

일자 / 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13. 3. 29(금) 장기늘봄사랑터	찾아가는 공연	시립극단 단원	낭독공연 <그곳에 가면 행복이 흐른다> 中	100명
2013. 5. 24 ~ 6. 2 소공연장 (11회)	제65회 정기공연 “파우스트”	<p>작: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연출 : 이종훈 각색 : 국민성</p> <p>*출연진*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최지연, 정순미, 김문정, 김태범, 서창희, 김희원, 권순정, 황혜원, 이신애</p> <p>*스텝* 안무 : 이지영 음악감독 : 신동희 무대디자인 : 이태섭 의상디자인 : 정경희 조명디자인 : 이상봉 분장 : 손진숙 소품 : 김혜지 특수효과 : 성범재 훈련장 : 이완희 조연출 : 손경희 단무장 : 김화산 기획.홍보 : 이옥희, 이돈형, 김새롬</p>	<p>“젊음을 위해 영혼을 판 한 남자!!!”</p> <p>[줄거리] 역병과 고난을 몰고 다니며 세상을 암흑 속으로 빠트리고 있는 악령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자 주님 악행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 주님이 일생을 진리 탐구에 바쳐온 파우스트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인간 세상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악령은 파우스트의 영혼을 악의 구렁텅이로 유혹하여 파멸시켜 보이겠다며 내기를 하자고 한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신 주님은 기꺼이 내기에 응한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악령은 부활절을 맞아 역병을 퍼트리고, 사람들은 파우스트에게 매달리지만 그가 섭렵한 학문과 지식으로도 역부족이다. 사람들도, 파우스트도 절망한다. 역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파우스트는 결국 악령의 유혹에 굴복하고 만다. 악령은 신통술로 파우스트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여준다. 늙은 파우스트에게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매력적이다. 게다가 악령이 보여준 아름다운 여인의 환영은 젊음에 대한 강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파우스트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젊음을 사기로 한다. 마녀의 도움으로 파우스트가 젊음을 되찾자 젊은 악령 메피스토는 그의 종복이 되어 넓은 세계를 두루 보여 주고 관능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제공하지만 파우스트는 즐겁지가 않다. 그는 다시 고향으로, 자신의 서재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부활절 저녁에 메피스토와 함께 마을에 도착한 파우스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당으로 가던 순수하고 귀여운 소녀 그레첸을 만난다. 파우스트는 그레첸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p>	4,484명

일자 / 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13. 6. 22(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p>*출연진* 조옥선, 서국현, 강주희, 김현준, 김희원, 이신애</p> <p>*스텝*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기획홍보 : 이옥희, 이돈형</p>	<p><낭독공연> 中 ‘고령화가족’</p>	300명
2013. 7. 1(월) 경주예술의 전당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파우스트”	<p>작: 요한 볼프강 폰 괴테</p> <p>연출 : 이종훈 각색 : 국민성</p> <p>*출연진*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최지연, 정순미, 김문정, 김태범, 서창희, 김희원, 권순정, 황혜원, 이신애</p> <p>*스텝* 안무 : 이지영 음악감독 : 신동희 무대디자인 : 이태섭 의상디자인 : 정경희 조명디자인 : 이상봉</p> <p>분장 : 손진숙 소품 : 김혜지 특수효과 : 성범재 훈련장 : 이완희 조연출 : 손경희 단무장 : 김화산 기획.홍보 : 이옥희, 이돈형, 김새롬</p>	<p>“젊음을 위해 영혼을 판 한 남자!!!”</p> <p>[줄거리] 역병과 고난을 몰고 다니며 세상을 암흑 속으로 빠트리고 있는 악령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자 주님 악행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 주님이 일생을 진리 탐구에 바쳐온 파우스트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인간 세상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악령은 파우스트의 영혼을 악의 구렁텅이로 유혹하여 파멸시켜 보이겠다며 내기를 하자고 한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신 주님은 기꺼이 내기에 응한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악령은 부활절을 맞아 역병을 퍼트리고, 사람들은 파우스트에게 매달리지만 그가 섭렵한 학문과 지식으로도 역부족이다. 사람들도, 파우스트도 절망한다. 역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파우스트는 결국 악령의 유혹에 굴복하고 만다. 악령은 신통술로 파우스트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여준다. 늙은 파우스트에게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매력적이다. 게다가 악령이 보여준 아름다운 여인의 환영은 젊음에 대한 강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파우스트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젊음을 사기로 한다. 마녀의 도움으로 파우스트가 젊음을 되찾자 젊은 악령 메피스토는 그의 종복이 되어 넓은 세계를 두루 보여 주고 관능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제공하지만 파우스트는 즐겁지가 않다. 그는 다시 고향으로, 자신의 서재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부활절 저녁에 메피스토와 함께 마을에 도착한 파우스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당으로 가던 순수하고 귀여운 소녀 그레첸을 만난다. 파우스트는 그레첸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p>	700명

일자 / 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3. 7. 20(토) 문갑도 문갑리공동체	찾아가는 공연 “알, 비장전”	연출 : 이완희 작곡 : 김두관 *출연진* 차광영, 최진영, 정순미, 송주희, 김희원, 권순정, 황혜원, 이신애 *스텝* 안무 : 이승희 음악지도 : 안선균 의상디자인 : 정경희 무대디자인 : 박재범 음향감독 : 김현산 단무장 : 김화산 기획.홍보 : 이옥희, 이돈형, 김새롬	<p>[줄거리]</p> <p>흥겨운 음악과 관객과의 어우러짐 속에 막걸리가 오가며 극은 시작된다. 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 가는 뱃길에 풍랑을 만나니 무당이 등장하여 관객과의 굿판이 이루어진다. 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 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 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양반과 상놈의 계급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 결국 3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되짚고 넘어간다. 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빼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궤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 톱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 어부의 도움으로 궤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 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방자와 애랑, 고수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p>	40명
2013. 7. 22(월) 동구노인문화센터				100명
2013. 7. 23(화) 동구치매센터 희망의 집				40명
2013. 7. 24(수) 부평구치매센터 갈산행복의 집				40명
2013. 7. 25(목) 남동구노인복지관				250명
2013. 7. 26(목) 인천사할린동포 복지회관				50명
2013. 7. 27(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알, 비장전”	300명		

일자 / 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3. 8. 2 ~ 3 거창 수송대 축제극장 (2회)</p>	<p>거창국제연극제 “파우스트”</p>	<p>작: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연출 : 이종훈 각색 : 국민성</p> <p>*출연진*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최지연, 정순미, 김문정, 김태범, 서창희, 김희원, 권순정, 황혜원, 이신애</p> <p>*스텝* 안무 : 이지영 음악감독 : 신동희 무대디자인 : 이태섭 의상디자인 : 정경희 조명디자인 : 이상봉 분장 : 손진숙 소품 : 김혜지 특수효과 : 성범재 훈련장 : 이완희 조연출 : 손경희 단무장 : 김화산 기획.홍보 : 이옥희, 이돈형, 김새롬</p>	<p>“젊음을 위해 영혼을 판 한 남자!!!”</p> <p>[줄거리]</p> <p>역병과 고난을 몰고 다니며 세상을 암흑 속으로 빠트리고 있는 악령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자 주님 악행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 주님이 일생을 진리 탐구에 바쳐온 파우스트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인간 세상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악령은 파우스트의 영혼을 악의 구렁텅이로 유혹하여 과멸시켜 보이겠다며 내기를 하자고 한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신 주님은 기꺼이 내기에 응한다.</p> <p>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악령은 부활절을 맞아 역병을 퍼트리고, 사람들은 파우스트에게 매달리지만 그가 섭렵한 학문과 지식으로도 역부족이다. 사람들도, 파우스트도 절망한다. 역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파우스트는 결국 악령의 유혹에 굴복하고 만다. 악령은 신통술로 파우스트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여준다. 늙은 파우스트에게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매력적이다. 게다가 악령이 보여준 아름다운 여인의 환영은 젊음에 대한 강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파우스트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젊음을 사기로 한다. 마녀의 도움으로 파우스트가 젊음을 되찾자 젊은 악령 메피스토는 그의 종복이 되어 넓은 세계를 두루 보여 주고 관능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제공하지만 파우스트는 즐겁지가 않다. 그는 다시 고향으로, 자신의 서재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p> <p>부활절 저녁에 메피스토와 함께 마을에 도착한 파우스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당으로 가던 순수하고 귀여운 소녀 그레첸을 만난다. 파우스트는 그레첸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p>	<p>1,200명</p>

일자 / 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3. 8. 20(화) 나솔채양로원	찾아가는 공연 “알, 비장전”	연출 : 이완희 작곡 : 김두관 *출연진* 차광영, 최진영, 정순미, 송주희, 김희원, 권순정, 황혜원, 이신애 *스텝* 안무 : 이승희 음악지도 : 안선균 의상디자인 : 정경희 무대디자인 : 박재범 음향감독 : 김현산 단무장 : 김화산 기획.홍보 : 이옥희, 이돈형, 김새롬	<p>[줄거리]</p> <p>흥겨운 음악과 관객과의 어우러짐 속에 막걸리가 오가며 극은 시작된다. 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 가는 뱃길에 풍랑을 만나니 무당이 등장하여 관객과의 곱판이 이루어진다. 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 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 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양반과 상놈의 계급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 결국 3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되짚고 넘어간다. 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빼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궤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 톱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 어부의 도움으로 궤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 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방자와 애랑, 고수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p>	30명
2013. 8. 21(수) 대한어머니회 노인복지센터				70명
2013. 8. 22(목) 성지에담양로원				35명
2013. 8. 23(금)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80명
2013. 8. 27(화) 호세요양원				40명
2013. 8. 28(수) 서구치매센터				40명
2013. 8. 29(목) 구립효성노인 복지센터				80명
2013. 9. 3(화) 무의도				100명
2013. 9. 5(목) 세영공원				500명
2013. 9. 6(금) 부평 행복의 집				30명

일자 / 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13. 9. 9(월) 남구치매센터 돌봄의 집	찾아가는 공연 “알, 비장전”	연출 : 이완희 작곡 : 김두관 *출연진* 차광영, 최진영, 정순미, 송주희, 김희원, 권순정, 황혜원, 이신애 *스텝* 안무 : 이승희 음악지도 : 안선균 의상디자인 : 정경희 무대디자인 : 박재범 음향감독 : 김현산 단무장 : 김화산 기획.홍보 : 이윅희, 이돈형, 김새롬	<p>[줄거리]</p> <p>흥겨운 음악과 관객과의 어우러짐 속에 막걸리가 오가며 극은 시작된다. 신관 사또 제주 부임길에 예방 직위를 맡은 알비장 일행, 강화 가는 뱃길에 풍랑을 만나니 무당이 등장하여 관객과의 굿판이 이루어진다. 무사히 도착한 알비장 일행, 강화 경치를 즐기며 관객과의 너스레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알비장과 방자의 여색의 유혹에 대한 내기가 시작된다. 고고한 척 하는 알비장과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하는 사또, 방자, 애랑의 어울림은 강화도 화류로 이어진다. 알비장은 방자에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양반과 상놈의 계급사회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엔 관객과의 사설로 이어진다. 결국 300냥이란 거금을 방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여자를 소개받으려는 비장의 행위에 다시 관객과의 사설로 넘어가며 현 시점에서의 비리와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져있는 이들을 되짚고 넘어간다. 하룻밤의 사랑으로 이빨까지 빼주고 방자의 등장으로 궤 속에 갇히게 되는 알비장. 톱질을 당하는 위기를 겪으며 결국은 바다에 던져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 어부의 도움으로 궤 밖으로 나와 해엄을 치는 알비장, 바다가 아닌 땅위에서의 개해엄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방자와 애랑, 고수의 노랫가락으로 이 극은 마무리가 된다.</p>	35명
2013. 9. 10(화) 형제나사로의 집				50명
2013. 9. 11(수) 성산종합사회 복지관				40명
2013. 9. 12(목) 고은손요양원				50명
2013. 9. 13(금) 협성양로원				100명
2013. 9. 14(토) 야외공연장	토요상설무대 “알, 비장전”	500명		
2013. 9. 26(목) 상꾸지공원	찾아가는 공연 “알, 비장전”			500명
2013. 10. 2(목) 인향고등학교				600명
2013. 10. 11(금) 송도 트라이볼센터				300명

일자 / 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3. 11. 22 ~ 12. 1 소공연장 (11회)</p>	<p>제66회 정기공연 “리어왕”</p>	<p>원작 : W.셰익스피어 번역 : 신정옥 연출 : 김철리</p> <p>*출연진*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범, 서창희, 김희원, 권순정, 황혜원, 이신애</p>	<p>“사랑하는 딸들이 말해요. 너희들 중 누가 이 애비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p> <p>[줄거리] 리어왕이 늙어 왕위에서 물러나고 세 공주에게 왕국을 나누어 주리라 결심한다. 맏딸인 올버니 공작의 부인 거너릴과, 둘째 딸인 콘월 공작의 부인 리건은 아침하는 말로 많은 재산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막내 딸인 코딜리어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뿐이라고 하여 리어왕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결국 그녀는 무일푼인 채 프랑스 왕과 결혼하게 된다. 리어왕의 시중을 들기가 역겨워진 딸들은 아버지의 방문을 거절하기에 이르렀고, 끝내는 폭풍이 몰아치는 밖으로 쫓아내 버리고 만다. 그리고 켄트백작은 코딜리어를 편들었다 하여 국외로 추방당하고, 글로스터 백작은 리어왕을 동정함으로써 리건의 남편에게 두 눈을 뽑혀 버리고 말았다. 한편, 리어왕의 신하인 글로스터 백작에게는 에드거란 아들과 에드먼드라는 배다른 아들이 있었다. 동생인 에드먼드에게 배반당한 형 에드거는 정신병이 든 거지로 변장하여 실명한 아버지의 뒷수발을 든다. 리어왕은 분노와 고통으로 해서 광인이 되어 버리고, 변장한 충신 켄트백작의 안내로 코딜리어를 만난다. 거너릴과 리건은 미남자인 에드먼드에게 정을 쏟게 되고, 그 불의의 사랑으로 해서 끝내는 서로 원수가 된다. 결국 거너릴은 리건을 독살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코딜리어는 프랑스 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으나, 에드먼드가 이끄는 영국군에게 패배하고 만다. 한참 세력이 등등하던 에드먼드도 에드거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어 그 지위에서 쫓겨나게 된다. 리어왕과 코딜리어는 감옥에 갇히는 몸이 되고, 에드먼드의 명령으로 코딜리어는 사형에 처해진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리어왕은 괴로운 나머지 뒤따라 숨을 거두고 만다.</p>	<p>2,914명</p>
<p>2013. 11. 29(금) 소공연장</p>	<p>청소년 특별공연 “리어왕”</p>	<p>*스텝*</p> <p>무대디자인 : 이유정 조명디자인 : 이상봉 의상디자인 : 정경희 소품디자인 : 김혜지 음악 : 이나리매 헤어디자인 : 빅토리아 무대감독 : 이완희 조연출 : 손경희 단무장 : 김화산 기획홍보 : 이옥희 이돈형, 김새롬</p>	<p>한편, 리어왕의 신하인 글로스터 백작에게는 에드거란 아들과 에드먼드라는 배다른 아들이 있었다. 동생인 에드먼드에게 배반당한 형 에드거는 정신병이 든 거지로 변장하여 실명한 아버지의 뒷수발을 든다. 리어왕은 분노와 고통으로 해서 광인이 되어 버리고, 변장한 충신 켄트백작의 안내로 코딜리어를 만난다. 거너릴과 리건은 미남자인 에드먼드에게 정을 쏟게 되고, 그 불의의 사랑으로 해서 끝내는 서로 원수가 된다. 결국 거너릴은 리건을 독살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코딜리어는 프랑스 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으나, 에드먼드가 이끄는 영국군에게 패배하고 만다. 한참 세력이 등등하던 에드먼드도 에드거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어 그 지위에서 쫓겨나게 된다. 리어왕과 코딜리어는 감옥에 갇히는 몸이 되고, 에드먼드의 명령으로 코딜리어는 사형에 처해진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리어왕은 괴로운 나머지 뒤따라 숨을 거두고 만다.</p>	<p>190명</p>